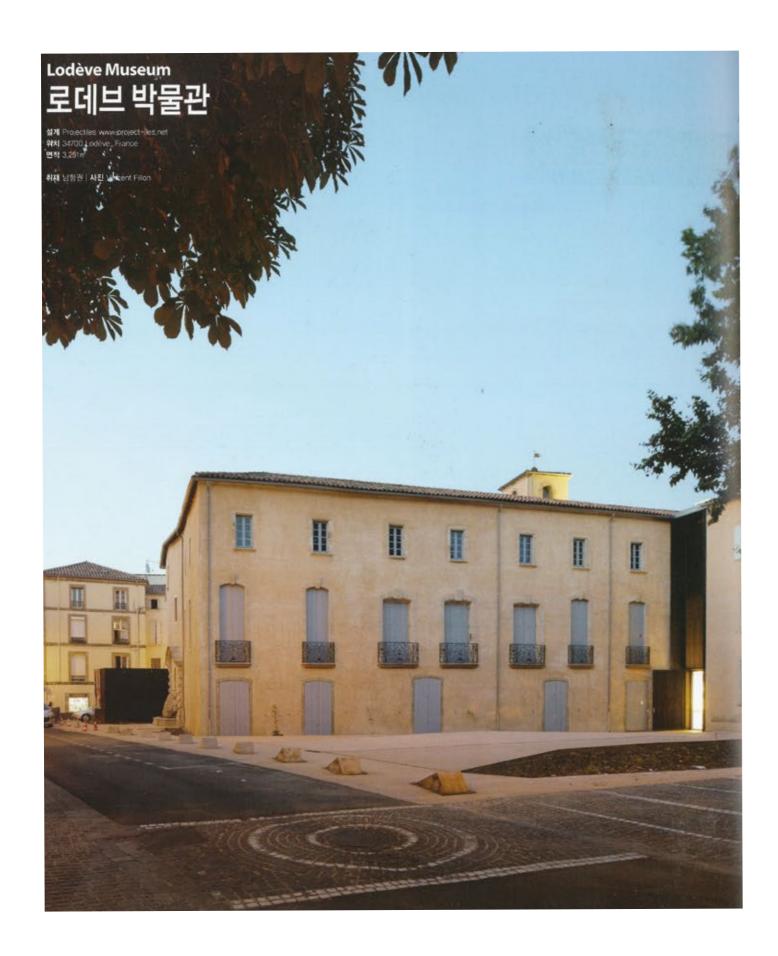
NTERIORS 02. FEB 2019 389 since 1986 www.interiorskorea.com BRKN **DESIGN MIAMI/ ELEMENTS OF STYLE** MUSEUM & GALLERY



리노베이션 작업을 시행한 지 4년이 지난 로데브박물관(Lodève Museum)이 프랑스문화부장관 프랑수와즈 뉘쌍(Françoise Nyssen)에 의해 2018년 7월에 재개관되었다. 이 박물관은 지역용 소개하고 상징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역을 향해 더욱 넓게 개방되기 위해 앞마당은 깨끗이 정리되었고, 높은 강철 조형물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가벼운 ETFE 막으로 마감된 높이 13m의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시물이 구성되어 있다.

현대 광물의 발달과 미가공 소재의 사용은 박물관 특유의 정체 성을 반영한 것이다. 박물관은 모두 이 지역을 기원으로 하는 고생물학, 고고학, 폴 다르데(Paul Dardé) 컬렉션 등 세 가지 컬 렉션 간의 친밀한 연계성을 강조한다.

박물관은 순수미술 전시물 또는 몰입적인 전시물 등 때때로 달라지는 각 전시의 역동성에 따라 그 디자인이 변화한다. 이 프로젝트는 프랑스가 문화·청소년·스포츠 분야에 수여하는 2018 에꾀르 다르장(Équerre d'Argent)에 지명되었고, 박물관/전시관 분야에서 2019년 ADC 어워드를 수상하였다.

이 박물관이 자리한 부지는 복잡하기 때문에 건물의 구성을 알 아차리기 어렵다. 플뢰리호텔(Hötel Fleury)을 제외하고는 어느 건물도 눈에 띄지 않는다. 설계팀은 박물관의 새로운 출입구로 현대적인 파사드를 끼워 넣었다. 안팎에서 '광물성'을 띠는 이 프로젝트의 특성은 상징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다양한 연대의 구성을 결합한다.

레뮈블리크거리에서 눈에 들어오는 플뢰리호텔은 외부의 모든 구성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일종의 신호 역할을 한다. 대대로 전 해지는 것들의 가치가 앞마당 모든 외부 공간들의 재개발과 더 불어 더욱 높아졌다.

실내에서는 역사적인 건축물과 현대적인 건축물 사이의 물리 적인 대화가 다양한 전시 배치형태를 가능케 하고, 그 안에서 여러 단계의 접근방법이 실제로 작용하여 섬세하고 미묘한 뉘 강스의 시각적 인식을 낳는다. 그 목표는, 단순히 장식적인 성 격을 넘어서서 실제로 일이볼 수 있는 박물관 배치의 연속성 대개발에 힘입어, 논쟁적이고 민감하지만 서술적이지 않은 해 석을 제시하는 것이다.



FEVRIER 2019 Lodève Museum









